

海外業界動向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

세계 지역별 반도체 시장 규모

(단위 : 백만불,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증가율
전세계	77,310	93,806	101,167	113,517	132,751	14.5
북미	24,744	31,122	32,834	36,854	43,644	15.2
일본	23,798	27,190	29,289	32,171	36,527	11.3
유럽	14,599	17,798	19,465	21,745	24,927	14.3
아시아	14,168	17,696	19,579	22,747	27,654	18.2

주) '93년은 실적, '94~'97년은 예측치임.

세계반도체시장통계(WSTS)는 세계 주요반도체 업체 62개사가 가맹되어 있는 반도체시장에 관한 세계적인 통계기관으로,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춘계시장예측 회의에서 반도체의 세계시장이 금년도에 21% 성장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동예측의 배경인 세계 거시 경제동향은, 미국이 '91년에 침체를 벗어나 '92년부터 '94년까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그 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92년부터 '94년까지의 침체를 벗어나 '95년부터는 회복세를 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유럽은 '93년에 침체를 벗어나 그 후부터는 완만하게 회복하며, 아시아지역은 금후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예측에서는 '94년에도 21.3% 증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후 '95년에는 7.3%의 증가로 성장률은 감소하나 '96년에는 21.6% 증가 '97년에 16.9% 증가로 다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94년도 분기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1/4분기가 4.7% 증가, 2/4분기가 6.2% 증가, 3/4분기가 4.4% 증가, 4/4분기가 1.0%의 증가로 추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반도체시장의 성장률은 엔화기준으로 '92년에 13.2% 감소하여 크게 후퇴하였으나, '93년에 7.3% 증가의 회복세로 전환하여 '94년에는 11.3% 증가로 두자리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후는 '95년에 7.7% 증가, '96년에 9.8% 증가, '97년에 13.5% 증가로 다시 두자리 신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3~'97년의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4.5% 증가하여 '97년에는 약 1,327억불 규모가 되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연평균 18.2% 증가로 가장 신장률이 높고, 북미가 15.2% 증가, 유럽이 14.3% 증가, 일본이 11.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94년의 제품별 시장예측(달러기준)은 IC가 23.0% 증가한 약 812억불, 디스크리트가 11.8% 증가한 약 126억불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IC는 유럽에 있어서의 PC시장 호조로 MPU를 중심으로 하는 MOS 마이크로가 20.4% 증가 MOS 메모리가 34.4% 증가로 계속 신장세를 보이며, MOS 로직(20.7% 증가)과 아날로그(17.0% 증가)도 높은 신장이 예측되며, 한편 디지털 바이폴라는 작년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금년에는 9.6% 감소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콤팩트, '93 모빌컴 시장에서 수위 차지

미국 데이터퀘스트가 발표한 「'93년도 세계 모바일 컴퓨터 시장 조사」에 의하면, 콤팩·컴퓨터가 '92년 제3위에서 톱으로 약진하고 전년 수위였던 애플 컴퓨터는 제3위로 전락하였다.

데이터퀘스트가 노트북/서브·노트북/팜 톱 등의 PC, 고성능 전자수첩 등 휴대형 컴퓨터를 대상으로, 각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제2위였던 도시바가 12.1%에서 11.4%로 시장점유가 축소했으나 동 2위의 자리를 지켰고, IBM은 3% 증가한 8.8%를 획득함으로써 상위 5개사가 전체의 53.6%('92년에는 49.7%)를 차지하고 있다.

'93년도 세계 모바일 컴퓨터의 매출 상위 5개사
(단위 : 백만불)

순위	업체명	'92년	점유율	'93년	점유율
1	콤 팩	1,190.4	11.0%	2,039.7	13.6%
2	도시바	1,313.3	12.1%	1,702.9	11.4%
3	애플	1,370.8	12.6%	1,529.7	10.2%
4	NEC	893.0	8.2%	1,432.8	9.6%
5	IBM	627.7	5.8%	1,315.8	8.8%
	기 타	5,469.2	50.3%	6,965.9	46.4%
	합 계	10,864.4	100.0	14,986.8	100.00

* 자료 : 데이터퀘스트

'93년도 세계 HDD 시장 동향

세계 HDD 업체별 출하실적

(단위 : 천대, %)

	'92년		'93년	
	대 수	비 중	대 수	비 중
퀵 텀	6,754	15.3	10,650	20.7
시게이트	9,432	21.3	10,230	19.9
코 너	9,877	22.3	9,650	18.7
IBM	4,338	9.8	5,454	10.6
웨스턴·디지털	3,815	8.6	5,155	10.0
맥스토어	4,046	9.1	5,021	9.7
기 타	5,980	13.6	5,348	10.4
합 계	44,242	100.0	51,508	100.0

* 자료 : 데이터퀘스트

작년의 하드 디스크 구동장치(HDD) 시장

에서는 퀵텀이 크게 신장하였고 또 수량기준으로는 시장규모가 확대하였으나, 단가하락으로 매출면에서는 힘든 상황을 보였다고 최근 미국 데이터퀘스트가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93년 출하대수 기준으로 퀵텀은 '92년의 3위에서 단숨에 정상으로 비약하였는데 출하대수 면에서는 '92년의 675만대에서 1,065만대로 크게 신장하여 시장점유가 5% 증가한 20.7%를 기록하였으나 '92년도에 1위였던 코너는 출하대수가 987만대에서 965만대로 줄어 시장점유가 18.7%로 감소하였다.

시장전체로는 4,420만대에서 5,150만대로 수량기준으로는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단가하락으로 매출은 190억불에서 181억불로 축소되었는 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의 단축과 가격인하 경쟁이 점차 가속화하는 경향에 있어 각사 모두 기억용량의 대용량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일 광화이버망을 통합하는 「GII (글로벌·인포메이션·하이웨이)」 구상에 협력

일본의 우정성 장관과 미국의 NII(정보수퍼하이웨이구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세계적 규모로 광화이버망을 통합하는 「글로벌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GII) 구상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현재 국내의 광화이버망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심의회(우정성 장관의 자문기관)에서 심의하는 외에, 한국과도 협력해 아시아지역의 네트워크화인 AII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GII 구상에 협력키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II 구상은 금년 3월 고어 미 부통령이 제창한 것으로, 지구촌 규모로 광화이버망을 연결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국내를 광화이버망으로 연결하는 NII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대규모적인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GII 구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의 금년 경제성장률 3.6% 증가

전미국기업이코노미스트협회(NABE)가 최근 발표한 미국 경제예측조사에 의하면, 금년에도 경제성장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BE 가맹국인 이코노미스트 35명을 대상으로 5월 상순에 집계한 동조사에 의하면 금년도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3.6%로 지속가능한 성장률인 2.5%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성장률이 2.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예상은 금년이 2.8%, 내년이 3.4%이며, GDP 플레이더는 금년이 2.3%, 내년이 3%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작년의 6.8%에서 금년에는 6.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신수출전략-BEM 구상

최근 미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브라운 상무장관이 발표한 신수출전략에 미경제계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대규모신흥시장(BEM : Big Emerging Morket)」의 약자로 BEM 구상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남미, 아시아, 동구 등 10개 국가·지역을 수출시장으로써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척해 간다는 계획이다.

금년 초에 발안자인 상무차관의 발표 직후, 재계 일각으로부터 재원과 인재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나왔으나 정부지원에 의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함에 따라 재계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AT&T의 정부조달 담당임원은 「각국의 대형통신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미국 정부의 지원이 열쇠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상무부 소관으로 부시정권의 모스베커 전 상무장관 시절에도 이러한 활동에서 평판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주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었으나, 당초 BEM 구상은 포화상태에 있는 선진국이 아닌 높은 성장률을 바라보는 신흥시장이 목표로서 BEM 구상이 상무부만의 과제가 아닌 정부전체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평소 수출진흥에 별로 관계없는 연방정부에까지 참여를 독려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항공관제 업무를 지도하고 있는 연방항공국(FAA)은 장래 미국으로부터의 항공레이다시스템 수출을 돕기로 하였다.

브라운 상무장관은 BEM 시장 중 9개 국가·지역을 가까운 시일내에 방문할 예정이며 또 최근 수주일간은 기업간부를 상무부에 초청해 직접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미국 벨 아틀란틱, 내년 쌍방향 TV 본격 개시

미국 동부 지역전화회사인 벨 아틀란틱은 최근 미국내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사업인 쌍방향 TV 방송을 내년초부터 워싱턴, 필라델피아 등 도시권지역에서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내에서는 지역전화회사와 CATV 회사가 각지에서 쌍방향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상업방송이 아니어서 이번의 조치는 사업채산 등의 면에서 정보 슈퍼 하이웨이의 장래 전망을 점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규모는 110억불로 쌍방향 설비를 구입한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뉴스, 오락, 영화 등 좋아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선택해 단말기로 지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동사에서는 방송개시 후 수개월 내에 현재의 CATV 시장의 절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2000년까지는 850만 세대의 가입자

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 달 중에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기지국 설치면허를 신청하고 AT&T가 중심이 되어 시설건설을 행할 계획이다.

미 IBM, 정보고속도로용 통신망 접속기술 개발 계획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보 슈퍼 하이웨이 구상에 뒤늦게 참여한 IBM이 전화, CATV 등 호환성이 없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망 접속기술개발전략을 세워 놓았다고 보도하였다.

IBM에 의하면 전화회사와 CATV 회사는 IBM의 호환기술을 통해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신판매업자 등의 네트워크와 접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동사의 새로운 S/W가 컴퓨터 시스템간의 Gap을 해소하면 소비자는 TV를 리모콘으로 조작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통신판매업자의 컴퓨터가 받은 주문이 CATV 네트워크를 통해 크레딧 회사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지불절차를 실행하게 되고 또, 배송회사의 컴퓨터가 정보를 받아 배송일정을 확인하게 된다.

시스템 전체는 TV 화면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4개의 컴퓨터 시스템 접속이 원활히 행해지지 않아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IBM은 이미 신기술 판매담당부의 신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EU의 GDP 성장률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최근 역내의 경제전망을 발표, EU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금년에 1.6%, 내년에 2.5%로 작년 11월의 예측보다 상향조정하였다. 지난 번 전망에서는 금년에 1.3% 내년에 2.2% 였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경기는 이미 작년 봄에 침체를 벗어나 그 후 완만한 경기회복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96년에는 3% 이상 신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국별 성장전망에서는 독일이 금년에 1.3%, 내년 2.4% 프랑스가 각 1.6%와 2.8% 이탈리아가 각 1.5%와 2.8%로 순조로이 확대하나 한발 먼저 회복을 보인 영국은 금년 2.5%에서 내년에는 2.3%로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EU 전체의 실업률은 경기회복 효과가 미치지 못해 금년에 11.7% 내년 11.6%로 지난해 전망치인 각 11.2%와 11.3%에서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인플레이율은 금년 3.3%(지난번 3.5%) 내년 2.9%(동 3.2%)로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유럽의 PC 시장 동향

최근 유럽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금년 1/4분기의 서유럽 PC 시장에서 컴팩 컴퓨터가 라이벌인 IBM을 제치고 정상위치에 올라섰다.

동지와 미국 데이터퀘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1~3월 컴팩의 유럽에서의 점유율은 작년동기의 10.8%에서 11.8%로 신장하였고 IBM은 12.8%에서 11.0%로 하락하였다.

1/4분기의 유럽시장 전체의 출하는 8.1%의 증가를 보였는데, 작년 4/4분기의 2.8% 감소보다는 신장세를 나타냈으나 작년 1/4분기의 20% 증가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매출은 56억 6,000만불로 12.5%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능이 강화된 기종에 매출을 촉진시켜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데이터퀘스트는 컴팩의 성공요인의 하나는 가정과 중소기업에의 판매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로 보고 있는 데 컴팩은 이제까지의 대기업 상대의 납품 외에도 '94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인하와 신규소매업자와의 계약을 추진해 왔다.

이결과 동사의 유럽사업부장에 의하면 1/4 분기의 유럽에서의 소비자 중소기업에서의 매출은 전체 매출인 8억 2,900만불의 약 15%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수년전 동부문 매출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팔목할 만한 실적인데 컴팩의 점유율이 유럽시장 전체에서 11.8%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용 시장에서는 7%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IBM의 판매감소는 기술장애로 인해 일부 주요 신형기종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고 또 현행기종의 수급에 대한 착오 등이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독일 전자산업, 회복세

독일 전자기술 산업연맹(ZVEI)의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로부터의 수주가 신장하고 있어 금년 업계에는 봄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내수부진 등의 이유도 있어 업계의 합리화 노력과 정부에 의한 입지조건 개선추진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장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금년에 들어 해외로부터의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다. 전년도는 수주가 3.8%에 머물렀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 전환점에 진입.

② 그러나 내수는 여전히 침체상태에 있는데 1~3월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하였고 그 결과 금년 전체업계의 생산 신장률은 2% 수준으로 예상.

③ 전체 생산량의 2/3를 점하고 있는 투자재의 회복률이 높고 또 양적으로는 아직 적으나

전자 디바이스의 2자리 성장이 주목.

④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작년 평균 100만명이었던 업계의 고용자 수는 3월말 현재로 98만 3,000명이 되었으나, 수천명 정도 더 감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 안정시키는 금년 후반.

⑤ 수익률의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기업에 의한 코스트 인하 노력의 성과는 판매가격의 하락에 의해 상쇄이상의 마이너스를 초래.

⑥ 따라서, 각 기업의 구조개선과 코스트 인하 정책은 금후에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나 정부 측에서도 그것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입지조건 개선책을 더욱 촉진해야 함.

⑦ 특히 연구개발부문에서는 공적인 기초연구분야와 업계의 실용화 생산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교통시스템의 조기완성에는 정부차원의 협력이 불가결.

독일의 첨단기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독일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최근 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일 뒤떨어진 첨단기술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부터 가을에 걸쳐 각지에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 시작으로써 본 시내에서 “하이테크 자동차” 등 첨단 기술제품을 출품시킨 전시회에 참석한 콜 수상은 「독일은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웨어를 잃고 있어 효율적인 연구, 현대적인 생산, 부단한 개혁이 없이는 세계시장에 있어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콜 수상은 또한 세계시장에서의 독일 기술의 낙후에 대해, 「가장 나쁜 예로써는 유전자연구 거점으로써 미국에는 300개소, 일본에는 130개소가 있는데 비해 독일에는 불과 4개소 뿐」라고 지적하였다.

동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요지는 아

래와 같다.

①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신기술 개발의 실용화에 현저히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그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 대두.

② 컴퓨터나 FAX는 본래 독일의 연구성과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것의 개발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것도 역시 연구개발에 관한 규제의 엄격함에 기인.

③ 연간 연구개발비는 800억 마르크로 국내 총생산(GDP)의 2.6%나 되지만 그 2배 이상의 금액이 이제는 경쟁력을 잃은 산업분야에 아직도 보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연합(EU) 전체에도 해당.

④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세계와 사회정책면에서의 신속한 대책이 요망.

일본의 캠코더(액정모니터 부착) 제품 동향

현재 일본에서는 액정모니터가 부착된 캠코더가 인기리에 있다. 샤프, 소니, 후지 필름 등이 제품을 내놓았고 최근 마쓰시다 전기의 신제품은 슈퍼 VHS-C를 채용했다. 선행 3사의 제품에 대해 각사의 이점을 도입한 상품이랄 수 있는 구조로 카메라, 액정 패널, 데크부로 나누어 각각 최고의 성능을 도입했다고 한다. 카메라부는 4분의 1인치 58만 화소를 채용하고 손전동방지시에도 33만 화소의 고화질로 촬영된다.

액정 패널은 11만 2,000화소를 지닌 업계 최고의 고밀도와 밝기를 자랑하는 자사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덮개 겸용인 패널을 사용, 전후반전을 포함해 자유로운 각도를 설정할 수 있다. 흑백전자관식 뷰파인더도 갖고 있어 촬영 목적에 따라 패널, 뷰파인더로 분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액정 모니터가 부착된 비디오 카메라는 재작년에 샤프가 발매한 이래, 히트상품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소니, 후지 필름의 2개사가 잇달아 발매했다. 이 때문에 비디오카메라 시

장에서 상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마쓰시다 전기의 상품화가 주목되고 있었던 것. 선행한 샤프는 동제품인 「액정 뷰캠」 제3탄을 6월 7일에 발매하여 금년에는 주력 5기종에서 국내 35만대, 해외 40만대 등 총 75만대의 판매 계획을 세우는 등 의욕적인 모습인데 신제품 HL3, EL13은 동시 발매 중인 칼라정지화 전화송수신이 가능한 영상 모뎀으로 간단히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동사는 금년도 업계의 액정모니터 타입 수요가 절반에 가까운 6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니의 「핸디캠·코믹」, 후지사진 필름의 「심플·하이에이트」 양제품은 액정 패널을 3인치, 2.5인치의 소형 사이즈로 하고 배율도 저배율로 억제하였다. 또, 후지 필름의 특징은 액정모니터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한 것이다.

이들 2사와 새로 뛰어들은 마쓰시다 전기에서는 올해 액정모니터 타입을 전체 비디오 카메라의 30% 구성비인 40만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상의 증가는 비디오 카메라 전체 수요를 낮추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비디오 카메라의 일본 수요는 '90년대의 191만대를 절정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작년에는 3년만에 117만대라고 하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수요 증가의 원인은 샤프의 액정모니터 타입의 등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액정모니터 타입은 종래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타입과 비교해 커다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점과 모니터를 이용해 테이프를 촬영하는 점, TV 튜너를 접속하여 TV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업계용을 포함해서 새로운 용도가 생겨 포터블 화상재생기로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일본 미놀타, 중국에서 PPC·LBP 생산

미놀타 카메라는 중국에서 PPC와 레이저빔 프린터를 일관해서 생산할 생산 거점의 신설과 이를 지원할 생산관리회사를 5월말 홍콩에 설립하였다.

중국의 생산거점인 석룡공장(광둥성)은 총면적이 18,000m² 로 10월에 개업하였는데 당초에는 저속 아날로그 PPC가 월 생산 5,000대, LBP 동 1만대로 출발했지만 6개월 후에는 2배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지부품의 조달률을 70~80%로 할 계획이다.

생산거점을 후원하는 신회사 미놀타·인더스트리즈(HK)사는 생산거점의 생산관리, 종업원기술지도, 부품조달과 결제를 담당하는데 자본금은 500만 홍콩달러로 미놀타 카메라가 100% 출자했다.

NEC, 중국에서 전산 소프트 연구개발

NEC는 최근 북경시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북경에서 합작계약서에 조인했다고 발표했다.

신회사는 자본금 1억 5,000만엔으로 6월 15일에 설립예정인데, 출자비율은 NEC가 90%, 중국과학원연건연구소가 10%라고 한다. 종업원은 첫째엔 50명(그 중 일본인은 3명)이지만 계속 종업원 수를 늘려 장래에는 200명을 예정하고 있다.

영업개시는 7월 8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첫째 매출로 예상하고 있는 약 6,000만엔은 NEC로부터의 위탁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NEC는 5년 전부터 동연구소와 소프트 매뉴얼의 전자화 등 위탁연구개발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그 성과에 힘입어 합작회사를 설립, 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합작연구회사로서는

중국에서 제1호인 이 사업의 내용은 오픈 시스템계의 소프트웨어 기술연구와 제품개발이 주를 이룬다.

중국에서는 컴퓨터 기술도입이 아직 초기적인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급속하게 컴퓨터화가 진전되고 있어 중국에서 자연과학연구 학술기관으로서 최고인 중국과학원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인적으로도 한층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만 UMC, 486기종 대량 생산

대만의 연화전자(UMC)는 내달에도 25-MHz와 33MHz 판인 「486SX」급 MPU를 대량생산에 들어간다. 이미 이 회사는 아시아 고객들에게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 중인데, 아시아의 업계측은 동사의 MPU가 판매되면 인텔의 「486」과의 가격경쟁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어 인텔은 UMC를 마이크로 코드(제어 소프트웨어)의 특허침해로 소송할 공산도 크다고 한다.

연화전자의 MPU 「UMC 486」은 인텔의 486과 동일한 핀 수, 동일한 포장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UMC 486에는 현재 코프로세서가 없지만 올 가을 대량생산에 들어갈 때에 486DX에는 코프로세서 기능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UMC의 DX판도 66MHz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대량생산에 대비해 UMC는 6월까지 486의 가격방침과 플랫폼 전략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8월까지 월 생산수 10만개의 속도로 생산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시에 UMC는 내달 UMC 486과 인텔의 P54C를 후원하는 PCI 버스 칩세트를 출하할 계획이다.

업계측에 따르면 UMC가 486을 출하 개시하면 퍼스날 컴퓨터 메이커가 인텔, AMD, 사이릭스 3사에 대해 MPU의 가격인하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 UMC의

486SX·33MHz판은 사이릭스의 「486S-LC」의 가격인 80달러보다 싸게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UMC의 본격 출하를 내달로 앞두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인텔에서는 UMC의 샘플검사를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할지의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UMC는 '91년 미국 메리디안·세미콘닥터 매수와 동시에 486DX, 486SX, 386DX 호환 MPU를 설계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인텔의 특허품인 마이크로 코드와 레이아웃의 저작권에 저촉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UMC 대변인)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더우기 UMC는 486과는 별도로 RISC형의 MPU 「SPARC」도 올 하반기에 생산에 들어가는데 동 SPARC는 4단계의 명령 수송관, 전압, 핀 수, 포장으로 사이프러스의 「CY7C601」 「602」 「604」와는 호환성을 지닌다.

대만 최대 프린트기판 업체, DRAM 참여 검토

대만 최대의 프린트기판 업체인 남아소교(남야·플라티릭)가 DRAM 분야로 진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현되면 모젤·바이티릭, TI-에이서(TI와 에이서 합작)에 이어 대만에선 3번째로 DRAM 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관계자에 의하면 남아소교는 16M와 64M·DRAM을 생산하기 위해 최근 수개월간 미국 업체와 교섭중이라고 하는데 제휴 상대에는 IBM과 인텔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오끼전기도 남아에 기술이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남아는 내년에도 대북시 근교에 8인치 웨이퍼 공장 건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중국, AV기기 수요 확대

중국 시장에서 주요 AV기기의 수요 확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점차 수요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데 앞으로 수년간은 지속적인 신장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컬러 TV는 이미 도시에선 보급률 90%를 넘어서고 있어 개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꾸준히 수요의 상승추세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전자기계공업회에서는 '98년도 수요가 컬러 TV 1600만대, VTR 3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컬러 TV 수요는 도시의 경우 이미 보급률 90%를 넘어섰다. '93년도 수요는 전년대비 8.7% 증가인 1,250만대인 데 '98년까지 개인 소득의 신장세에 발맞추어 계속적인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요 동향의 변화로서는 대형화와 2대 보유 수요를 들 수 있으며 '94년도에 전년대비 104.0%인 1,300만대, '95년도에는 전년대비 107.7%인 1,400만대, '96년도에는 전년대비 103.6%인 1,450만대, '97년도에는 전년대비 106.9%인 1,550만대, '98년도가 전년대비 103.2%인 1,600만대의 수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VTR의 경우, 북경과 상하이 모두 보급률이 아직은 5할 이하의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보급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순조로운 신장세가 기대된다. 또 신규수요에서 2차 수요로의 이행도 시작되고 있는데 중국 전체를 보면 아직은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에 있지만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서서히 타도시와 농촌으로 수요확대가 파급되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93년도에 전년대비 104.0%인 260만대, '94년도가 동 111.5%인 290만대, '95년도가 동 106.9%인 310만대, '96년도가 동 106.5%인 330만대, '97년도가 동 106.1%인 350만대, '98년도가 동 108.6%인 380만대로 점차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 밖에 비디오카메라(카메라 일체형 비디오)는 '93년도에 15만대였던 것이 '98년에는

37만대로 VD 플레이어는 '93년에 43만대였던 것이 '98년에는 90만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내구소비재 니즈 동향

중국 소비자가 희망하는 내구소비재 구입 리스트를 보면, 컬러 TV나 전기 냉장고 만큼이나 에어컨과 전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통계국이 지난 달 중순경 대도시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2%이고, 금세기 중에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세대가 28.4%에 달했다. 통계국에 따르면 주거환경과 통신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될 조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어컨은 66.4%가 국산기종이며 수입품으로는 미쓰비시, 산요, 마쓰시다 등의 일본 제품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퀵템, 아태지역본부 신임사장에 필립 링 임명

하드디스크 시장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인 퀵템사는 지난 6월 1일자로 인사이동을 단행, 손영권사장을 미국 본사(캘리포니아주 밀티파스 소재) 데스크탑 및 휴대용 저장장치 사업부(Desktop & Portables Storage Group)의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승진발령하고 신임 아태지역본부 사장에 필립 링(Philip Leung)씨를 전격 기용했다. 신임 링 사장은 손영권 전임사장의 뒤를 이어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영업, 판매, 재무 등 모든 업무를 오는 6월 7일부터 관장하게 된다.

손영권 전임사장은 지난 해 아태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 설립, 사업신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퀵템사의 매출액이 70% 이상 성장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아태지역에서의 사장점유율

을 15%에서 22%로 끌어올리는 외에도 호주, 홍콩, 중국에 현지 판매망을 설치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링 신임사장은 홍콩 브이테크(VTech Holdings Ltd)사의 미국 현지법인인 브이테크 컴퓨터(VTech Computer Inc)사의 사장으로 재직중 최근 퀵템에 합류했는데 미국과 아태지역에서 컴퓨터와 세미컨덕터 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판매, 영업, 금융, 기획 등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내쇼날 세미콘덕터 Power PC (tm) 베이스 컴퓨터 겨냥 클럭 제너레이터 발표

내쇼날 세미콘덕터는 최근에 발표된 Power Macintosh(tm) 컴퓨터에 적용시켜 일반적인 샘플링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인 CGS-700V의 공급가능함을 발표했다.

CGS700V는 Power PC(tm) 601 마이크로 프로세서, 캐쉬메모리, RAM 메모리의 타이밍 소스로 사용될 수 있는 한 IC에서 9개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내쇼날 세미콘덕터는 외부 귀환 루프 기능이 있는 관련제품인 CGS701V의 샘플공급이 가능함을 발표했다.

내쇼날 세미콘덕터의 세번째 신제품인 CGS410V는 애플 컴퓨터에 의해 다양한 모니터 크기와 구성에 클럭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CGS410V는 현재 양산중에 있는 제품으로서 고성능 비디오와 그래픽 서브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완벽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클럭 제너레이션 제품이다.

모든 CGS(tm) 신제품은 정확성과 고속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PLL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700V와 701은 160MHz의 클럭을 출력할 수 있다. 클럭 제너레이터 회로의 정확도는 지터와 스큐에 의해 측정되어진다.